건양간호소식지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제 23대 학생회 두드림

제 1호
2017-04월

학장님 인사말

< 간호대학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며 >

안녕하세요

대전 메디컬캠퍼스에 산수유 노오란 꽃이 피고, 하얀 목련이 봉우리를 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에 얼굴을 내미는 새싹처럼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학생 여러분들의 첫 소식지가 탄생하였네요. 우리 간호대학 모든 교수님들의 마음을 모아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치단체입니다. 1995년 첫 입학생이 간호학과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부학생회장을 간호학과가 맡았던 역사도 있었고, 의과학대학, 의과대학 시절, 그리고 간호대학으로 독립되는 역사 속에서 600여명이 넘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설립 22주년이 되는 2017년은 간호대학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2학기부터 새로운 교사에서 수업과 실습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에 맞추어 간호대학 학생회의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여러분! 작은 시작이지만 그 열정과 의지로 멈추지 마시고 더욱 노력하여 주세요. 소식지는 학생회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하는 학생회 바로 알리기의 장과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며 간호 대학생들의 내·외부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풍성해 지는 소식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간호대학장 한수정 교수님

학생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제 23대 두드림 학생회 학생회장 서현주입니다. 드디어 간호학과의 소식지가 탄생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지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무사히 제 1호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드림'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림'의 나누어주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불편한 점은 줄여나가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드리다'. 먼저 두드리고 다가가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 소식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소통과 화합의 문을 두드리는 첫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 학우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6월에도 소식지가 나올 예정이오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학생회장 서현주

2017년 3월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들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부터 간호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게 된 이선아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조교수로 있었고 12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어 무척 좋고, 건양대에서 일하게 되어 무척 설렙니다.

저는 과거 간호사로 신생아중환자실과 분만실에서 3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에선 간호정보학을 공부하여 현재는 간호정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에서 여성건강간호학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역량이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과 학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로 인해 저도 더 발전된 역량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아 교수님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의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간호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감은 사람이 도전하고 싸울 수 있게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감에만 차있는 것은
빈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내실 없이 창만 휘두르는 꼴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을 잃으면 금방 무너진다.
자존심은 사람을 모욕과 불의로부터 지키게 한다.
모욕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감도 없냐'가 아닌 '자존심도 없냐'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자존심만 센 것은 허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방패 뒤에서 꽥꽥 소리만 지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면 금방 망가진다.
자존감은 자신감과 자존심의 기반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역경 앞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재정비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남의 조언과 충고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자존심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강건한 육신은 자신의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다.
올바른 자신감과 자존심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온다.
- 작자미상의 시

희망 없는 젊은이는 청년이 아니라 이미 노인인 것입니다. 희망은 젊음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오를 새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재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임용된 신임교수 허보윤입니다. 저는 학부생 때부터 간호학 교수의 꿈을 가졌고, 간호이론-실무-연구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접목시켜서 학생들에게 간호학을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학생들이 간호학을 발전시키는 일원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실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며 준비해왔고, 저의 첫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었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여러분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도서관의 30가지 명언 중 하나인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는 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들인 노력의 결과는 분명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 줄 것입니다.

Dream Come True!

허보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영희 교수입니다. 뒤돌아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간호사로 지낸 나의 삶이 27년이 넘었네요. 신규간호사를 중환자실에서 시작하여 결혼하고 몇 년 쉬었으며 대전으로 이사 온 이후 임상이 그리워 병원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역시 간호사는 환자의 침상 옆에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 병원 생활은 신규시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간호사가 무엇인지 간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간호가 전문직이라는 것과 간호를 함에 있어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여 임상에서 환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건양대학교병원으로 2000년에 옮긴 후 파트장, 병원팀장, 외래팀장을 두루 거치며 2011년 간호부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학교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비 간호사들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한 간호는 우리 간호사들의 손 끝에 있습니다. 임상이 낯설지 않게 간호가 행복하게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배영희 실습지도부장님

1학년의 한마디



2017년 3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에 새내기 17학번이 입학했습니다. 갓 입학한 새내기로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 대학생으로서 처음 맞는 시험과 과제, 선배 및 동기들과의 학교생활이 떨리고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학기를 맞아 간호학과 새내기들과 입학소감과 다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Q.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에 17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한 소감이 어떤가요?

• 동기유발학기를 통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특강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교수님들을 멘토로 삼아서 전문적 이고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반 일동

• 신입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학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 진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온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능하면 교직, 실습 등 최대한 여러 체험을 경험해봤으면 하며, 더 노력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2반 일동

• 놀란 점은 학구열, 분위기인데 덕분에 흐트러짐 없이 잘 나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학과의 커리큘럼 아래 계획적으로 공부해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을 갖춘, 항상 발전하는 간호사가 될 것 같습니다.
•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게 많지만, 더 열심히 하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반 일동

Q. 앞으로 간호학과 내에서 기대되는 점 또는 다짐 한마디 해주세요!

• 시스터(브라더)제도가 많이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제도인 줄 알았는데 선배님과 만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선배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더 기대됩니다. 또한 선배님에게 배운 것들을 내년에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본교 간호학과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실제로 실습이나 간호학 과 관련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 습니다.

• 크게 성장할 저희의 영어실력이 기대됩니다! 건양대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기대했던 점은 학습 분위기였습니다. 건양대 간호학과는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 가 정말 좋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기숙사 자습실에서, 곳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고 매일 새롭게 다짐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Kels, 리얼 잉글리쉬 온라인 강의 등 1학년부터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온 만큼, 저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룬 만큼 나머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견문을 넓히는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동기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학과 내의 다양한 활동들과 학교의 여러 동아리,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봉사 소감문 – 라오스



<그건, 사랑이었네>

<선발대>

[라오스에서의 첫 걸음]
인천공항에서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공항까지 약 5시 10분, 한국과 시차차이는 2시간, 라오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라오스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항을 벗어난 순간 훅하고 들어오는 습함과 뜨거움.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라오스! 싸바이디" 그렇게 라오스에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
봉사를 하는 모든 순간이 찬란하고, 행복이고,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첫 일정이었던 가시시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이었다. 가시시 초등학교는 처음 봉사를 시작한 곳으로, 스스로가 모든 순간에 가장 열정적으로 몰두한 곳이었다.

• 나는 선발대로 출발하여,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을 때는 정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막막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있어 지체할 수 없었다. 베이스캠프는 다 같이 힘을 합쳐 텐트를 치고 부엌을 정리하면서 서서히 밑바탕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봉사 시간은 너무나도 즐거웠다. 아이들과 언어의 장벽을 느끼기는커녕 말이 통하지 않아도 풍선아트, 바람개비 만들기, 컬러링북 색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아이들의 학교를 지어주기 위한 봉사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구멍을 파고 시멘트를 붓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이 한층 한층 쌓일 때의 그 희열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 이렇게 좋은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건기인 라오스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3일 동안 쏟아진 비는 어쩔 수 없이 가시시 초등학교와의 이별을 앞당겼다. 철수를 하기로 결정이 되던 날, 마지막 교육봉사 시간 내내 아이 중 한 명이 한 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도 우리가 떠난 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던 것 같다.

• 마지막, 손을 흔들면서 아이들로부터 떠날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슬펐다. 가시시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은 봉사 기간 중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자,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다.

[부족한 1℃를 더해준 해외봉사]
매 번 방학 때마다 집 안에서만 지내며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만 지내었는데 해외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나의 생활에 1℃를 더해준 것 같다. 해외봉사라는 꿈은 나의 20대의 로망이자 가장 소원하였던 일 중 하나였다. 20대 가장 청춘일 때 뜨거운 땀과 나의 뜨거운 열정을 녹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40명과 함께하는 단체생활 속에서 배려와 한 발 물러나는 양보, 함께하는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뿌듯함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40명의 12기와 인솔자 선생님들, 라오스의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그건 모두 사랑이었네.





<후발대> 한주안, 김나현, 길선미, 심문기, 강승희, 우지수, 편소윤, 김혜린

[라오스에서의 첫 걸음]

후발대로서 첫 봉사지역인 가시시에 도착했을 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흡사 우리나라 강원도와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뿜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덥고 습한 날씨가 봉사에 걸림돌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전 다짐했던 각오와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다음 날부터 있을 봉사활동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교실을 지어주는 노력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발대 인원이 다져준 터에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어서 넣는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 어려움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잔부상도 많이 생기고 몸살도 나긴 했지만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봉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라오스에선 건기에 보기 힘들다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잠깐 내리고 그칠 줄 알았던 비는 연일 계속되어 더 이상 봉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봉사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뜻하지 않게 가시시지역에서의 봉사가 끝났지만 그 동안 흘렸던 땀방울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해외봉사에 지원하기 위해 임했던 사회봉사센터장님과의 면접에서 라오스가 행복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에 대해 완전히 공감을 하진 못했지만 직접 라오스아이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첫 대면에서부터 우리를 환한 미소로 맞이해준 아이들은 언제나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우리가 제공해준 작은 물품에도 고마워하고 다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번 놀랐던 것은 전공봉사 중 이었다.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주민들에게 혈압과 체온을 재주는 전공봉사를 실시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붐볐다. 그러던 중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간혹 새치기를 하셨는데 앞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을 낼 거라는 나의 예상 과는 달리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웃으며 오히려 자리를 내어 주었다. 자신보다 남들을 먼저 배려하는 라오스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라오스에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학생들

방학 중 해외연수 - 일본국제의료복지대학

2017년 1월 10일 ~ 20일 (10박 11일) 일정으로 학기 중 선발과정을 통해 총 16명의 학생들이 방학 동안 일본의 후쿠오카에서의 연수과정을 마쳤다. 일본 단기연수의 주제는 '일본의 노인케어-지역, 재택과 병원, 시설과의 효과적인 연결'이었다. 학생들은 국제의료복지대학과 다카키병원, 산노병원, 야나가와재활센터, 모모치 종합케어센터 등에 방문해 일본의 대학 단위, 도시·국가 단위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했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서는 일본 교육부 지원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Nursing Career Cafe에 우리학교의 교수님과 학생이 한국 간호에 대해 발표하는 등 활발한 참여의 성과를 인정받아 16명 모두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8만엔 씩 정부장학금을 수여받았다.(이뉴스투데이, 박희송 기자)

일본은 노인이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케어에 대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간호와 고령자케어 시스템에서는 아직 기술적인 발전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일본 연수를 통해서 노인간호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매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약 2주간의 일본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10일 화요일에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11일에 환영회, OT를 하고 일본의 간호제도에 대한 강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고령자 멘탈 케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12일은 오전에는 후쿠오카산노병원에서 시설견학과 고령자간호에 대한 강의를, 오후에는 모모치 종합케어센터에 방문, 견학했다. 13일에는 이미향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생교류프로그램을 진행, 오후에는 그 중에서도 기모노와 다도체험을 하는 등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14일 토요일에는 다자이후텐만구라는 신사에서의 문화체험 진행 후 각자 해산하여 토, 일요일 주말 동안 자유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각자 일본에서 가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기념품을 사는 등 관광을 즐기기도 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에는 고령자케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고령자체험을 하는 등의 실습이 있었고, 학생 동아리의 교류활동이 있었다. 17일 오전에는 다카키병원에서 뇌졸중 재활간호에 대한 강의와 시설 견학이 있었고, 오후에는 아나가와 재활병원에서 지역의료연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재활병원에서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18일에는 후쿠오카 플라자라는 시민복지시설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마이즈루엔 양로원에 방문하였다. 마지막으로, 19일 목요일에는 연수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20일, 학생들은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 국제의료복지대학에서 일본전통체험(기모노 입기)을 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학생들

함께 알아가는 이 달의 건강상식

이 달의 건강상식, “간접흡연”



간접흡연

- ✓ 정의: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
- ✓ 위험이유: 연기뿐 아니라 담배의 또 다른 부산물이 입자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는데 먼지 등의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생성→ 21일이 지난 후에도 약 40%나 남아있음
- ✓ 발암, 관상동맥 심질환,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발생 위험 증가 및 호흡기 증상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지켜주세요!>

- 흡연 한 뒤에는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강의실에 입실하기.
- 흡연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기.
- 흡연 시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없는 곳(흡연부스) 이용하기.
- 다른 친구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기.

지정 강의실을 사용하고 항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교 특성상 몸에 남아있는 담배연기 속 유해물질이 다른 학우들에게 퍼지면서 부산물과 결합된 독성물질을 흡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2017년도 간호학과 학생회 예산

☞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지면으로 제공되어 4월호 소식지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 재학생 2,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투표 참여자 69%중 22%만이 단합대회를 희망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남은 학생회비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더욱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저희 두드림 학생회는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며,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교수님과의 간담회 (2017년 2월 13일)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읽어보시고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소통함을 이용해주시거나 아래 페이지를 통해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페이스북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페이지 검색 ◀

2017년도 간호학과 체육대회

☞ 2017년 4월 24일 (월) 18시 30분
방사선학과와의 여자 피구 경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24일 (월) 19시 20분
의료 IT 공학과와의 남자 풋살 경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27일 (목) 18시 30분 농구 경기와 20시 40분 풋살 경기가 예정되어있고 2017년 4월 28일 (금) 18시에 피구 경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학생회 임원 조직표

학회장
서현주

부학회장
이경아

기획국		연대사업국		재무국		문화미디어국		홍보국		정보국	
국장	유진아	국장	홍다온	국장	박주영	국장	지혜진	국장	지상아	국장	김다영
차장	장은진	차장	오현경	차장	이서온	차장	양솔아	차장	김아현	차장	임미선
						국원	안윤정	국원	김석무	국원	강승희
						국원	박유진	국원	정유나	국원	윤주숙
						국원	지정은			국원	이유진